

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문병진	영 문	Byungjin Mun
학과(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		학 번	
파견 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미국		파견 대학	UNLV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생이 끝나는 마지막학기, 평생에 한번 쯤은 외국에서 생활 하며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아는 형중에 호주 해외인턴을 다녀온 형과 대화하며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 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준비 자체는 이메일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빠르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답장을 보내도 시간대가 어긋나면 2,3일정도나 지나서야 답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한국보다 좀 더 느긋한 근무환경이라 그런지 일처리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니, 본인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부분은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발급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미루다가 출국 1주일 전에나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좀 더 서둘러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 신청같은 경우 알파벳 뒤에 붙는 숫자에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ME123, ME234등 과목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ME123은 1학년 수업을 의미하고 ME234는 2학년 수업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ME625수업을 수강했는데 6으로 시작하는 수업은 대학원 수업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과제만 하고 수업만 듣는다면 학점이수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확실히 대학원생과 수업을 들으면 많이 힘듭니다.

기숙사 신청은 정말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가능합니다. 기숙사 신청을 위해 여러 가지 홈페이지의 계정과 등록이 필요한데, 시기가 늦어서 신청해도 다 끝나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류준비를 하고 이메일로 전송할 때, 본인은 기숙사에 살기를 희망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빠르게 작성하고 제출 하겠다 등 본인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공권에 대한 팁으로는 제가 듣기로 라스베가스 직행 항공권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라스베가스에 유흥을 즐기러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때문에, LA를 경유하여 가는 항공편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조금 번거로워도 저렴한 항공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두가지 경우의 항공권을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우선 금오공대에 비해 확실히 대학교 크기가 굉장히 큼니다. 캠퍼스내에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GYM, 도서관, 컴퓨터실이 있는데, GYM같은 경우 4학점 이상 수강하시면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그 외 학생들은 한달 25\$에 이용가능합니다. 도서관, 컴퓨터실은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미팅장소, 스터디장소로도 사용되는 공간이고 건물내의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의 이용은 UNLV학생이라면 자유로우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라스베가스 시내 옆이라 많은 버스가 다닙니다. 버스 카드 같은 경우 학교에서 32.5\$로 한달 무제한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만약 숙소가 캠퍼스에서 조금 먼 곳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8월의 라스베가스는 굉장히 더운데 섭씨40도가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11월 초 까지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고, 사막이라 굉장히 건조합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UNLV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듣는 수업은 크게 두가지 종류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이 있고, 전공수업이 있습니다. 영어 수업의 경우 학기 말에 한학기간 진행했던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하는 과제가 있고, 전공의 경우 강의마다 차이를 가집니다.

교수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강의계획서를 미리 첨부해 놓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다만, 교수님들도 모두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의 출신 국가에 따라 영어발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공 수업의 과제는 계산해서 풀거나, 개념에 대한 학습을 도와주는 형태도 있겠지만, 팀프로젝트와 토론, 보고서 같은 형태의 과제도 역시 있습니다. 저의 경우, 팀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학생과 얘기를 하며 친해 질 수도 있었고,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성적은 절대평가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과제와 수업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수학점 (D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숙소는 출국전 가장 꼼꼼하게 확인 해야할 사항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하우스렌탈으로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보자면, 가격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기숙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턴십을 하다보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하우스 렌탈이 조금 더 유용합니다. 기숙사는 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쓸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한달은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한달 두달 지난 후에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활비가 집값 포함해서 대략 1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끼에 보통 10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NLV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 중에 하나가 학생증 만들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면 이 학생증이 필수입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UNLV의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영어 수업 외에도 원어민 친구를 사귀어 수 있게 도와주는 American buddy 프로그램 이라든지, 2주마다 인턴십 학생들끼리 보드게임이나, 일상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영어 실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 나름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랜드캐년 투어를 간다든지, 라스베가스의 쇼를 보러간다든지 등 라스베가스 근처 볼거리를 보러 2번정도

갑니다. 그랜드캐년 투어는 개인이 따로 신청해서 가는게 조금 더 재미있지만, 라스베가스 쇼는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것이라 추천합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부대시설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건 GYM입니다. 학교 헬스장이지만 굉장히 넓고, 내부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GYM안의 각 교실에서는 요가, 댄스 등 무료수업도 많이 진행합니다. 저는 3 학점 밖에 듣지않아서 25달러를 내고 다녔지만, 정말 싼 가격에 좋은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는 주변 친구들이 E스포츠 동아리에 들기도하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기도 했는데 나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입한 동아리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각자의 노력여부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겠지만, 저는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크게 영어가 늘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법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현지에 적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자신감하나만으로도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서툰 것이 당연하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 들었을 때, 자신감 있게 '못알아 들었어. 좀 더 천천히 말해줄래?'라고 말하면 정말 친절하게 다시, 천천히 말해줍니다. 그런 과정이 한달정도 지속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지치지만 그런 과정 후에 확실히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인종차별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종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간혹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종업원이 제 말을 못알아들어서 짜증섞인 목소리를 낸적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종차별의 일부분이라한다면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무례한 종업원들은 간혹 있다는 걸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그저 똥은 피해가자는 생각으로 생활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